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물음이다. 그 질문에 이리저리 부딪혀가며 여기쯤 혹은 거기쯤 답이 있는지를 찾아가는 여정이 한 생명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이다. 어딜 가더라도 북극점 하나를 쥐고 가는 탐험이라면 그나마 수월하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는 전자기적 기준점이 없다. 인류사를 통털어 그토록 많은 예술가들이 존재하는 것도, 또한 여전히 하룻밤 새 새로운 예술가가 태어나는 것도, 바로 이 방향으로 점철된 물리적 조건 탓이다. 예술가들이야 말로 그 모든 생의 한가운데 서서 물풀처럼 흔들리는 일을 업으로 삼은 인간인 까닭이다.

이 피 작가의 작품, <Memememememe Candle>을 보면서 이토록 가슴이 저릿한 것은, 마치 신내림을 받는 또 한 명의 바리데기를 보는 것 같은 처연함 때문이다. 방향을 잃고 부유하는 삶을 한 자락 유희로 떠내어 살며시 굳혀놓은 이 거대한 초 한 자루는, 제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여러 모양의 '나'를 강물에 띄워놓고 흔들리고 떠내려가는 대로 부유하는 형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여리고 불완전하며 정해진 것도 없이 모양을 바꾼 여러 개의 '나'가 얼음처럼 투명하게 굳어 있다. 그리고 그 차가운 대지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내키는 대로 뿌리를 내린 심지는 2m에 이르는 작품 곳곳에서 화산처럼 불을 밝힌다. 시작도, 끝도, 정해진 순서도 없이 불쑥불쑥 분출하는 활화산이 오늘은 여기서, 내일은 또 저기서 깊은 용암을 토해낸다.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나는 언제 어디서 불타오를지 모를 존재인 것이다. 불빛이 밝을수록 초는 녹아내린다. 태워서 살아나지만 그렇게 살면서 서서히 사라진다. '나'는 말 그대로 '얼음의 도가니'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랜 유학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 젊은 작가의 첫인상이었다.

사실 처음 이 피의 작품을 보았을 때에는 현란하도록 화려한 색채와 장식, 과격할만큼 파격적인 재료가 주는 시각적 충격 때문에 얼마나 깊은 울음이 그 속내에 담겨 있는지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림보기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은 짐짓 바라본 작품의 개수만큼이나 눈이 무뎠지기 일쑤라, 기존에 보았던 이미지가 만들어놓은 그물망 속으로 새 작품들을 별스럽지도 않게 끌고 들어간다. 이 피의 작품 속에는 입체파와 표현주의와 팝아트와 키치와 애브젝트 아트가 이미 얽혀있었고, 알게 모르게 눈에 익힌 이미지들을 본인의 작품 속에서 제 모습으로 보여주는 많은 작가들이 그러하듯, 그녀의 작품 또한 일견 차이를 드러내 보여주지 않았다. 물론 그 와중에도 그녀의 빛나는 젊음과 종잡을 수 없을 만한 천진함이 작품의 표면과 함께 일으키는 시너지는 감상자의 눈을 그 상태로 마비시킬 만한 힘을 갖고 있었다. 과도한 원색, 지나칠 만큼 분절된 형태, 감히 작품에 쓸 수 있을까 싶은 마른 오징어와 황태포 같은 재료들은 공상과학 만화에 등장하는 심해 생물에 게 휘감긴 채 몸이 이리저리 내동댕이쳐지는 것 같은 경험을 선사했다. 롤러코스터에 몸을 내맡기고 널뛰는 희열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그녀의 그림은 짧은 생애 비에 역사가 좀 길다. 누구라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갈 무렵 연필을 쥐고 그림을 시작하지만,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그리기를 시작한 것이 일곱 살, 첫 개인전은 그로부터 10년 후인 열일곱에 치렀다. 그것이 평생의 일이, 혹은 업이 될 줄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 작업이 세상에 첫 모습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열일곱 소녀로 대하지 않았고, 그것은 오래도록 작가에게 상처를 남겼다. 말하고 그리는 대로 소통할 수 없는 공간을 떠나고 싶었던 그녀의 짧지 않은 외유가 시작되었다. 유학생들이라면 누구라도 겪는 일상의 고통은 여지없이 그녀를 찾아왔고, 철저히 홀로된 날들 속으로 제 모습을 찾는 일은 계속되었다. 섞여있는 사람들과 다른 외양 안에 숨겨진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꺼내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작품의 디딤돌이 되었고, 피부 아래 숨겨진 내장도, 아직 돌아나지 않은 날개도, 몸의 구멍 하나하나마다 들고 일어나 제 목소리를 내려는 것들의 아우성으로 터져 나와 작품이 되었다. 그것은 이 피라는 작가가 스스로를 위해 마련한 제단 위에서 핏빛 분수로 솟구쳐 올랐고 사람들은 그 제단 아래서 그녀가 선사하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세례를 주는 행위를 통해 이방

인의 땅에서 다시 예술가로 태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최근 불화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모든 종교화가 그렇듯, 불화 역시 그리기 자체를 목표로 하는 그림이 아니다. 종교의 그림은 그 스스로 종교적 절대와 소통하는 매개이며, 그리는 행위 또한 그에 다다르려는 수행에 다름 아니다. 2년 여 시간을 잊고 있는 불화 수업에서 그녀의 스승이 건네는 숙제는 '지장보살 3,000장 그리기' 같은 것으로, 일상적인 그리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 그리는 일을 통해 다다라야 하는 곳까지의 여정에서 그녀는 무엇을 보았을까. 불화 중에서도 만다라는 삼라만상의 이치를 드러낸다. 산스크리트어로 본질(manda)이 변하는(la) 것을 뜻하는 만다라는 조화와 질서를 보여주거나 진리 자체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것의 현상적 실천까지도 담는다.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한 것의 구분 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각기 제 자리에서 빛나는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 그것이 바로 만다라다. 그 안에서 세계는 단일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의 집합으로, 그리고 각각이 서로에게 관계하는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불화는 그리는 사람에게나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나 같은 방식으로 그림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녀를 불화 수행으로 이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작가 이 피가 인식하는 세계는 그러므로 외관상 드러나는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다. 피부로 둘러싸여 가뒀진 신체의 모든 기관들은 제 각각 나름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그것은 단일한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지 않는다. 그녀에게도 신체의 본질(manda)은 변하는(la) 것이다. 확고하다 믿는 그 형상이 오히려 수상한 일이다. 그러므로 다분히 그녀의 작품을 입체파의 조형언어로 파악하는 일은 애초에 그릇된 일이다. 무언가를 나누어 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애초에 달리 존재하던 것을 그 모양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녀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경험'으로 점철된 그녀의 자기 인식은 다분히 분열증적이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새로운 모습들은 끝없이 제 얼굴을 바꾸며,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반복하는 <Memememememe Candle>의 작가의 모습처럼 드러나고 또 사라질 것이다. 다시 나타나고 또 없어질 것이다.

이 피 작가는 오랫동안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애독해왔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심해의 생물들은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시각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생김새도 그렇지만 깊고 낮은 곳에서 최소한의 산소로 살아가는 생명체의 상상을 초월하는 생존 방식은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밤을 불 밝힌 어화에 이끌려 물으로 나와 서양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냄새를 지닌 건어물로 변하는 오징어의 모습에 작가는 제 모습을 투영한다.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던 피부는 오간 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기호와 혐오 사이를 오가는 극단의 대상으로 변신한 마른 오징어는 그녀의 작품 속에서 다시 한 번 부활을 꿈꾼다. 작가의 말처럼 '승천하는 것은 냄새가' 날 테지만, 물리적 삶을 다한 뒤에도 작가의 손에 이끌려 작품으로 살아 있는 그 오징어들처럼 변하고 변하며 또한 변하는 가운데 삶이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느껴본다. 내일은 또 어느 심지에서 화산이 터지듯 불꽃을 피울지 알 수 없지만, 불이 지펴지면 초는 녹고, 초가 녹으면 '나'는 깊은 수심에서 떠오를 것이다. 녹아 없어지며 살아날 것이다. 다시 흔들릴 것이다.